Meritz 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 2025. 11. 17 (Mon)

금융 Analyst 조아해
02. 6454-4870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02. 6454-4905
kunhee.kong@meritz.co.kr

News

6%대 주담대, 2년 만에 등장…高신용자 금리 더 높은 '역전' 현상도
노컷뉴스 https://zrr.kr/bK2vL1

최근 시장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2년 만에 6%를 기록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에 따라 신용점수 높은 대출자가 낮은 대출자보다 대출금리는 높은 '역전 현상'도 포착

진옥동·임종룡 '연임의 벽' 넘을까…임기만료 앞두고 촉각
이코노미스트 https://zrr.kr/uGODjM

내년 초 신한 ·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사 수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여부와 교체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모습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금융권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주목도

금융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추진… 은행은 난색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jumjBH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연내 은행권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전망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5년 주기형이나 혼합형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 10년 고정형을 넘어 최대 30년에 달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확대하라는 취지

李 "금융계급제" 질타…은행 이익으로 서민금리 낮추나
이데일리 https://zrr.kr/fD1Fco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금융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

포용 금융은 현 정부가 밝혀온 정책 기조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익 재분배'까지 언급하면서 은행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NH證, 모험자본 투자 1조 확대…신산업 자본 공급 본격화
서울경제 https://zrr.kr/HEno6g

NH투자증권이 내년 모험자본 투자 규모를 2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

올해 1조 4000억 원 대비 1조 원가량 늘어난 수치로,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요건 충족을 위해 자기자본을 늘린데 이어, 이를 본격적인 투자 집행으로 이어가는 모습

인사 앞둔 대형 증권사, 누가 웃을까… 연임 무난 vs 리스크 변수
이코노미스트 https://zrr.kr/7bvbfO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연말 인사 시즌에 본격 돌입… 증시 반등과 거래대금 증가, IB 수익 확대 덕분에 대부분의 증권사는 지난해보다 실적이 개선

금융지주 계열사의 경우 그룹 전략과 내부통제 평가가 인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사실상 1년 조기 시행, 수수료·시책 규제 … 2026년 부터 '최적사업비 초과' 현미경 단속
보험저널 https://zrr.kr/SRfCQC

금융당국이 수수료 · 시책 규제 강화를 사실상 1년 앞당겨… 분급 수수료 제도는 2027년에 도입되지만, 2026년부터 보험사의 '최적사업비 초과 집행 여부'를 미리 점검할 계획

상품기초서류에 부과된 신계약비 기준(최적사업비)을 바탕으로 사업비 집행이 과도한지 여부를 내년부터 직접 모니터링하며 사실상 '사업비 과다 경쟁'에 대한 조기 감시 체계가 작동

'8주 치료' 재검토 車보험개편 흔들…업계 "내년 보험료 인상 불가피"
이데일리 https://zrr.kr/3iMA0H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구조를 손보려던 정부 계획이 국정감사 이후 사실상 제동

국토교통부가 자배법 시행령 · 규칙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금융당국이 함께 추진해 온 향후치료비 · 장기 치료 개선 작업도 연내 결론이 불투명

日, 가상화폐 '금융상품' 규정 추진…주식 거래와 동일 세율
뉴시스 https://zrr.kr/JVqxHG

일본이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규정해 주식 거래와 동일한 세율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

거래소가 취급하는 105개 종목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으로 삼기로 해…발행자 유무,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 등이 공개 대상

가상자산 '빅2' 업비트·빗썸, 거래대금 급증에 '깜짝 실적'
부산일보 https://zrr.kr/LWZo2G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 '빅2'인 두나무(업비트)와 빗썸이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과 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호실적으로 풀이… 다만 최근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의 위기감에 호실적이 지속될지는 미지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